

## 위덕왕 패전책임론과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

박종욱\*

- 
- I. 머리말
  - II. 패전 책임에 관한 논의와 王子 餘昌의 책임소재
  - III. 관산성 전투 후반부 전개 과정에 대한 새로운 고찰
  - IV.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관산성 전투 직후 위덕왕에게 제기된 패전책임론의 실체를 밝히고, 전투 당시 왕자 여창이 기로의 반대를 누르고 지금의 충북 영동군 심천면 일대에 추가 진군하여 구타모라 요새를 축조한 것으로 추정해본 글이다. 관산성 패전 직후 백제의 諸臣은 위덕왕에게 패전 책임을 추궁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그 책임소재를 왕자 여창이 원로 대신의 반대를 무시하고 관산성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해왔다. 하지만 당시 전쟁을 계획했던 실질적인 주체가 국왕 성왕이라는 점과 약 2년간 신라 공격을 준비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원로 대신의 반대 시점은 개전 이전이 아니라 전투 과정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본서기』 흠명기 15년 기사를 사료 배치 그대로 해석하면, 관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이 추가 진군을 시도하여 결국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여창의

---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강사

책임소재는 관산성 함락 후 원로 대신의 반대를 무시하고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군사적 행위였으며, 그로 인해 성왕의 피살 및 관산성 전투의 참패를 초래했던 위덕왕에게 여러 대신들이 책임을 추궁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54년 백제의 관산성 공격은 ‘한강 유역 재상실에 대한 복수전’으로 시작된 만큼 한성 수복에 상응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왕자 여창은 관산성 함락 후 후방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여 신라의 상주정과 중앙군단의 반격을 물리쳤고, 추가로 신라정벌을 도모하여 원로 대신들의 반대를 일축하고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추가 진군했던 구타모라는 추풍령로와 화령로를 군사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일대로 추정되는데,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군의 피로 물들여졌다는 핏골 전승 등 그 일대에 많이 남아있는 口傳이 참고된다. 한편 원로 대신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구타모라 진출로 인해 백제군의 병력은 분산되었고, 그 결과 옥천 방면에서 이동하던 성왕이 피살되고 백제군은 참패하였다. 후일 위덕왕에게 제기된 관산성 패전의 책임소재는 원로 대신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가 진군을 결정했던 군사적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주제어 : 管山城 전투, 威德王, 王子 餘昌, 聖王, 久陀牟羅, 狗川, 영동군 심천면

## I. 머리말

管山城 전투는 554년 지금의 옥천 일대에서 벌어졌던 百濟와 新羅의 군사적 충돌로, 백제 聖王의 비극적 죽음으로 널리 알려진 百濟史의 최대 사건 중 하나다. 특히 551년 백제·신라 연합군의 漢城 수

북부터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탈취, 이듬해 관산성 전투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6세기 중엽 한반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역사적 의미가 지대한 만큼, 관산성 전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농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전투의 배경과 목표, 전개 과정과 역사적 영향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는데, 이를 통해 관산성 전투의 양상과 의미가 비교적 소상하게 구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물론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는 다소 있긴 하나, 모두 맥락을 달리하는 기록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자 관산성 전투를 파악해보려는 다양한 관점으로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관산성 전투 전후의 다양한 사건<sup>2)</sup>들을 모두 포괄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려는 견해도 여럿 제출되어 관산성 전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sup>3)</sup>

관산성 전투의 배경 및 전반부 전개 과정, 전투의 영향과 그 역사적 의미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어느 정도 해석의 틀이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sup>4)</sup> 다만 본고에서 살펴보려는 위덕왕 패전책임론, 즉 관산성 전투 직후 諸臣들이 威德王을 질책하면서 제기했던 패전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대개 성왕 피살 및 패전의 책임소재는 관산성 전투 ‘직전’에 耨老<sup>5)</sup>의 반대를 일축하고 신라정벌을 강행했던 王子 餘昌의 잘못이라

1) 김갑동, 1999 ; 김주성, 2000 ; 김영심, 2007 ; 정운용, 2007 ; 김주성, 2009 ; 양기석, 2008 ; 전덕재, 2009 ; 김병남, 2010 ; 장창은, 2011 ; 후보돈, 2012 ; 서영교, 2016.

2) 『일본서기』의 553년 10월 百舍野 전투, 『삼국사기』의 553년 10월 성왕의 딸과 眞興王의 혼인, 『삼국유사』의 554년 9월 珍城 전투, 『삼국사기』의 554년 10월 고구려의 熊川城 침공 등이 바로 554년 관산성 전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사건들이다.

3) 전영우, 2022 ; 정재윤, 2023.

4) 양기석, 2008 ; 전덕재, 2009 ; 장창은, 2014, 185~207쪽; 정재윤, 2023.

5) 당시 백제 조정의 원로 대신들을 가리킨다(연민수 외, 2013, 385쪽). 또한 『禮記』 王制에서는 기로를 ‘鄉中에서 致仕한 卿大夫’라 하였는데, 이에 근거하여 왕도에서 은퇴한 고위 관료로서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현명한 인

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일본서기』에 여러 차례 보이는 기로의 반대 및 질책 그리고 출가 선언까지 했던 위덕왕의 행적으로 볼 때, 위덕왕을 향해 패전책임론이 불거졌던 상황은 사료상에서 분명하게 감지된다. 다만 패전책임론이 관산성 전투 직후 백제 정계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친 사안이었기에, 그 책임소재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로가 과연 전쟁의 ‘개전’과 관련해서 여창의 잘못을 질책했던 것인지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전쟁의 계획 및 준비, 개시와 관련해서는 국왕 성왕의 주도적인 움직임이 사료에서 쉽게 확인된다. 아무리 왕자 여창이 父王의 뜻을 받아 전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라도, 사료상 정치·외교 전면에서 전쟁을 이끈 인물은 성왕이었다. 당시 성왕은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왜에 군사를 요청하고, 결국에는 가야 세력까지 합세시키는 등 관산성 전투를 일찍부터 계획하고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기로는 국왕 성왕이 아닌 왕자 여창에게 간하여 전쟁을 반대하였는데, 전투 이전의 상황이라면 사실 성왕에게 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물론 왕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했던 왕자 여창에게 완곡하게 전쟁 반대 의사를 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으나, 그렇게 되면 위덕왕에게 패전 책임을 전가할 명분을 사실상 잃게 된다.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당시 기로에게 관산성 전투의 개시를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았고, 또 반대했던 시점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백제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성 수복이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그 빌미를 제공한 신라를 공격한다는 것은 당시 정세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게다가 552년 5월부터 약 2년간 왜에 원군을 요청하는 등 신라 공격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554년 전투 직전에 왕자 여창에게 신라 정벌을 반대하는 것은 그 당시 백제의 정치·외교적 노선 및 전쟁 준비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

---

물, 즉 유력한 원로 귀족으로 풀이하기도 한다(노중국, 2018, 406쪽).

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위덕왕 패전책임론의 발단이자 가장 중요한 사료적 근거라 할 수 있는 기로의 발언, 즉 ‘왕자 여창의 신라정벌에 대한 반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반대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점은 『일본서기』 흠명기 15년조 기사의 시점 이동 문제이다. 해당 사료는 대개 두 개 혹은 세 개 계통의 원전 자료가 하나로 합쳐진 것으로 이해되는데<sup>6)</sup>, 函山城 함락 바로 뒤에 기록된 ‘왕자 여창의 신라정벌 도모’ 기사를 함산성 함락보다 앞의 시점으로 이동시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물론 해당 기사를 전치문으로 파악하여 앞의 시점으로 이동시켜볼 수도 있겠지만, 『일본서기』의 문맥 내에서 두 기사는 엄연히 전후 사건으로서 순서대로 연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일본서기』의 관련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분석해본다면,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 중 후반부의 사건들을 새롭게 이해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그를 통해 왕자 여창의 패전책임론이 불거지게 된 ‘실질적인 사건’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관산성 전투의 개전부터 성왕 피살 및 대패까지의 모든 책임을 위덕왕이 떠안았다고 이해해왔는데, 본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先學諸賢의 아낌없는 叱正을 바란다.

6) 『일본서기』 흠명기 15년조의 기사 전반부는 백제 사신의 외교문서를 채록한 것이며, 후반부는 성왕의 전사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후반부 기사 중 여창의 탈출 부분은 안교군의 씨족 전승 자료를 인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위 기사는 성격상 3부분으로도 나눌 수 있다(정재운, 2023, 59쪽).

## II. 패전 책임에 대한 논의와 王子 餘昌의 책임소재

관산성 전투의 참패 후 백제는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였다. 佐平 4명 등 고위 관료를 비롯하여 약 3만에 가까운 사졸이 전사했고, 무엇보다도 국왕 성왕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됨에 따라 백제의 왕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사잇길로 빠져나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여창이 왕위에 올랐지만, 전쟁의 선봉에 섰던 그의 정치적인 입지는 크게 흔들렸다.

A. (555년) 8월 백제 여창은 諸臣에게 “나는 이제 돌아가신 父王을 받들기 위해 출가하여 불도를 닦고자 한다.” 라고 말하였다. 諸臣과 백성들이 “지금 君王께서 출가하여 불도를 닦고자 하신다면 일단 왕명을 받들겠습니다. 아! 사전 계획이 준비되지 못하여 후에 큰 근심을 가지게 되었으니, 누구의 잘못입니까? … (중략) … 만약 耆老의 말을 들으셨다면, 어찌 이 상황에 이르렀겠습니까? 지난 잘못을 뉘우치시고 속세를 떠나는 수고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중략) … 여창이 “좋다” 라고 대답하고 곧 신하들에게 방법을 도모하도록 하였다.<sup>7)</sup>

B. (554년 겨울 12월) 여창이 신라 공격을 도모하니, 耆老가 간언하기를, “하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창이 말하기를, “늙었구나! 무엇이 겁나는가? 우리는 대국을 섬기는데 어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마침내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요새를 축조하였다.<sup>8)</sup>

사료 A는 『일본서기』 흠명기 16년(555) 8월조 기사로, 관산성 패전

7) “八月 百濟餘昌謂諸臣等曰 少子今願 奉爲考王 出家修道 諸臣百姓報言 今君王欲得出家修道者 且奉教也 嗟夫前慮不定 後有大患 誰之過歟 …(중략)…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 請俊前過 無勞出俗 …(중략)… 餘昌對曰諾 卽就圖於臣下”(『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6年)  
8) “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5年).

후 백제의 정치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다. 국왕과 신하의 관계가 뒤바뀐 것으로 보일 정도로, 위 기사에서 백제의 諸臣은 위덕왕을 향해 패전 책임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신랄하게 이어가고 있다. 諸臣의 발언 중 주목되는 것은 ‘사전 계획(前慮)<sup>9)</sup>’ · ‘지난 잘못(前過)’으로, 이는 전투 당시 위덕왕이 내렸던 군사적 결정이나 판단을 의미한다.<sup>10)</sup> 결국 기로의 말을 듣지 않고 위덕왕이 내린 군사적 결정 때문에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인데, 사료 A를 통해 관산성 패전의 책임이 온전히 위덕왕에게 있음을 지적했던 백제 정계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sup>11)</sup>

관산성 전투 당시 위덕왕의 군사적 결정은 사료 B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왕자 여창이 신라 공격을 도모했으나 기로가 그것에 반대했고, 여창은 기로의 반대를 일축한 뒤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요새를 축조했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위덕왕에게 제기된 패전의 책임소재는 왕자 시절 기로의 반대를 누르고 신라 공격을 강행하여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군사적 판단과 행위라고 할

9) 기왕의 연구 및 역주본에서는 ‘前慮’를 앞선 생각, 이전의 생각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前慮不定 後有大患” 구절이 『史記』蘇秦列傳에서 가져온 것이며, 여기서의 ‘前慮’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의 ‘사전 계획’으로 풀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필자 역시 공감하는 바, ‘前慮’를 사전 계획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이 자리를 빌어 토론문에서 원문 해석을 지적해주신 이정빈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0) ‘지난 잘못’을 기로의 말을 무시한 것 그 자체로 보기도 하나(노종국, 2018, 407쪽), 패전 책임소재라는 성격상 실질적인 군사적 행위나 판단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11) 이와 달리 사료 A의 ‘前慮不定’은 위덕왕의 과오가 아니라 전쟁을 기획·준비했던 성왕의 과오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정빈 교수의 지적이 있었다. 또한 “縱使能用耆老之言 豈至於此”의 구절 역시 “설령 기로의 말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것임니다”라고 해석하였는데, 그럴 경우 사료 A의 전체적인 맥락은 위덕왕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왕자 여창의 책임을 감면시켜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위덕왕 즉위 전후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해석이라 여겨진다.

수 있다.

이처럼 불거진 패전책임론에 대한 위덕왕의 반응은 사료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덕왕이 국왕직을 걸고 出家修道를 선언함으로써 諸臣과의 타협을 도모했다는 지적<sup>12)</sup>을 고려하면, 공식적으로 패전의 책임 및 諸臣의 질책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위덕왕은 출가수도를 선언했다가 諸臣의 만류로 철회하는 가운데, 관산성 패전의 책임을 떠안으면서 귀족 세력과의 타협을 이루어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당시 諸臣이 제기하고 위덕왕이 수용했던 패전책임론의 사안, 즉 그 책임소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사료 B를 근거로 ‘개전 이전’에 왕자 여창이 기로의 반대를 일축하고 주도적으로 관산성 전투를 시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여창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장에서 의 큰 활약 때문인데, 앞서 百舍野 전투에서 여창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군을 물리친 바 있다.<sup>13)</sup> 그 연장선에서 관산성 전투 역시 왕자 여창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추진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전쟁의 계획과 추진 등 관산성 전투의 시작부터 성왕의 전사 및 패전까지 모두 왕자 여창의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관산성 전투의 계획 및 개전과 관련된 사안을 모두 왕자 여창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그렇게 보기에는 몇 가

---

12) 양기석, 2013, 196~197쪽.

13) “冬十月庚寅朔己酉 百濟王子餘昌[明王子 威德王也] 悉發國中兵 向高麗國築百舍野塞 眠食軍士 是夕觀覽 鉅野填腴 平原瀾迤 人跡罕見 犬聲葳聞 俄而儻忽之際 聞鼓吹之聲 餘昌乃大驚 打鼓相應 通夜固守 凌晨起見 曠野之中覆如青山 旌旗充滿 會明有着頸鎧者一騎 插鏡者[鏡字未詳]二騎 玃珣尾者二騎 并五騎 連轡到來問曰 少兒等言 於吾野中 客人有在 何得不迎禮也 今欲早知與吾可以禮問答者姓名年位 餘昌對曰 姓是同姓 位是杆率 年廿九矣 百濟反問 亦如前法 而對答焉 遂乃立標而合戰 於是 百濟以鉞刺 墮高麗勇士於馬斬首 仍刺舉頭於鉞末 還入示衆 高麗軍將 憤怒益甚 是時 百濟歡呼之聲 可裂天地 復其偏將 打鼓疾鬪 追却高麗王於東聖山之上”(『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4年).

지 의심되는 사안들이 있다.

첫째, 당시 전쟁 수행에 있어 왕자 여창이 아무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나, 성왕은 엄연하게 국왕으로서 정치·외교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전투 직전의 상황을 보면, 성왕은倭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지원군을 요청하고<sup>14)</sup> 가야 세력까지 끌어들이는 등 주도적으로 관산성 전투를 준비했다. 이렇듯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실질적인 주체는 사료상 국왕 성왕으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전쟁 개시의 책임을 왕자 여창에게 돌리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둘째, 기로가 과연 관산성 전투 그 자체를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물론 유력한 귀족들이 자신들의 군사·경제적 기반의 약화를 우려해 전쟁 추진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sup>15)</sup>, 또 신라와 고구려의 通好라는 국제관계의 불리함을 우려하여 전쟁에 반대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sup>16)</sup> 하지만 당시 백제의 신라정벌이 확실한 명분을 갖고 있는 국가 정책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 70여 년간 백제의 숙원사업이었던 한성 수복이 좌절된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신라에 대한 공격은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명분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신라와 고구려의 通好를 감지한 직후부터,<sup>17)</sup> 백제 성왕은 왜와 가야에 원병을 요청하는 등 약 2년여에 걸쳐 꾸준히 관산성 전투를 준비해 온 상황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라정벌을 반대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 신라 공격을 계획·준비해왔던 백제의 정치·외교적 노선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발언이라 볼 수밖에 없다.

셋째, 기로의 발언 대상이 국왕 성왕이 아닌 왕자 여창이라는 점이다. 아무리 父王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 하는 왕자 여창이라 하더라도, 전쟁 추진 여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국왕이 아닌 왕자에게

14) 『일본서기』에는 백제의 사신 파견 및 원병 요청 기사가 552년 5월, 553년 정월, 553년 8월, 554년 정월과 2월에 확인되는데, 총 5차례에 걸쳐 꾸준히 원병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15) 김병남, 2010, 18~19쪽.

16) 정재윤, 2023, 56쪽.

17)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3年(552) 5月條.

간한다는 점도 자연스럽지 않다. 왕자 여창을 통해 성왕에게 그 뜻을 완곡하게 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 경우 전쟁 개시와 관련한 패전 책임을 왕자 여창에게 전가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개전 이전에 전쟁을 반대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성왕이不在했던 전투 과정 중 왕자 여창에게 간했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위 사안들을 고려할 때, 당시 기로의 반대는 관산성 전투 직전의 계획·준비·신라 정벌 개시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개전 이후 관산성 전투의 ‘진행 과정 중’에 나온 여창의 군사적 판단이나 행위에 대한 반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여창이 전장에서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작전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로로 표현된 조정의 원로 대신이 왕자 여창에게 간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지난 잘못’(사료 A)이라는 것도 패전의 책임소재로 언급된 것이므로, 단순히 기로의 반대를 무시한 것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여창의 군사적 판단 같은 실질적인 행위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정리하자면, 기로의 반대 시점은 개전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개전 후 왕자 여창이 전장에 나가 지휘하고 있던 전투 과정 중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보여주는 『일본서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C. (554년) ① 겨울 12월에 백제가 下部 杆率 汶斯干奴를 파견하여 表를 올려 말하기를, “百濟王 臣 明과 安羅에 있는 여러 倭臣들, 任那 諸國의 卑岐들이 아뢰입니다. ‘斯羅가 무도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구려(狛)와 마음을 같이하여 바다 북쪽의 彌移居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신들이 함께 논의하여 有至臣 등을 보내 군사를 청해 斯羅를 정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천황께서 유지신을 파견하여 (그가) 군대를 이끌고 6월에 도착하니 신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12월 9일에 斯羅를 공격하러 보내면서 신이 먼저 東方領 物部連莫奇武를 파견하여 그 方의 군사를 거느리고

函山城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천황의 威靈을 입어서 이달 9일 酉時에 성을 불태우고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1인의 사자를 파견하여 배를 빠르게 몰아서 아뢰입니다.” 라고 하였다. 따로 아뢰기를, “만약 신라뿐이라면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구려(狛)가 斯羅와 함께 힘을 합했으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竹斯島에 있는 군사들을 빨리 보내 신의 나라를 돕고 또 임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라 했다. (…중략…)

② 여창이 신라 공격을 도모하니, 耆老가 간언하기를, “하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창이 말하기를, “늙었구나! 무엇이 겁나는가? 우리는 대국을 섬기는데 어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마침내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요새를 축조하였다.

③ 그 아버지 明王은 여창이 오랫동안 힘들게 진군하여 진을 치면서 잠자고 먹는 것을 오래도록 못하였고,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였다. 이에 몸소 가서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했다. 신라는 명왕이 직접 온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병사를 모두 징발하여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sup>18)</sup>

앞서 살펴본 바 있는 C-②는 위덕왕 패전책임론의 결정적인 근거

18)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 任那諸國旱岐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狛同心 欲殘滅海北彌移居 臣等共議 遣有至臣等 仰乞軍士 征伐斯羅 而天皇遣有至臣 帥軍以六月至來 臣等深用歡喜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 (…중략…) 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狛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 (…중략…) 餘昌謀 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茲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5年)

사료인데, 이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C-② 기사를 전치문으로 보고, 대부분 관산성 전투 개전 이전의 시점으로 이해해왔다. 즉 函山城(관산성) 함락 소식을 전하는 백제 사신의 외교 문서(C-①) 다음에 곧바로 연결되고 있는 ‘여창의 신라정벌 도모 및 기로의 반대(C-②)’를 개전 직전의 시점으로 파악해왔던 것이다. 물론 내용상 외교문서(C-①)와 성왕 전사(C-②)로 분명하게 구별되므로,<sup>19)</sup> 이러한 해석에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본서기』의 문맥 안에서 보면, C-①과 C-②는 분명히 전후 기사로 연결되고 있다. 그럼에도 C-②의 시점을 앞으로 당겨서 해석하면, 『일본서기』 내에서 사건 전개 순서가 엉키게 된다. 즉 사료 C의 사건 순서가 ‘②→①→③’으로 진행된다는 것인데, 아무리 다른 계통의 사료<sup>20)</sup>를 합친 것이라 하더라도 이처럼 시점이 뒤엉키도록 사료를 배치했을까?

또한 전투의 주체가 시점에 따라 뒤섞이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이해대로 보자면, ‘C-②(여창의 신라 공격 도모, 구타모라 요새 축조)→C-①(東方領의 함산성 함락)→C-③(성왕의 이동 및 전사)’ 순으로 정리된다. 하지만 왕자 여창이 전쟁을 도모한 후 구타모라에 요새를 축조하고 관산성 공격을 준비했다고 해놓고서, 정작 관산성 함락의 전과를 거둔 인물로 東方領을 특기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사료의 배치 순서 그대로 보아, 성왕의 명령을 받고 선발대로 파견된 동방령의 군대가 먼저 함산성을 함락했고, 왕자 여창이 그 후 후방 병력을 이끌고 선발대에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

19) 정재윤, 2023, 59쪽.

20) 앞서 언급했듯 『일본서기』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함산성 함락 소식을 전하는 백제 사신의 외교문서(C-①)이며 나머지 하나는 여창의 신라정벌 도모부터 성왕의 전사 및 참패로 이어지는 부분(C-②, ③)이다. 특히 신라를 두고 C-①에서는 斯羅, C-②에서는 新羅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로 볼 때 최소 두 계통의 사료가 한 곳에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이근우, 1994, 230-231쪽 ; 장창은, 2014, 201쪽).

한편 사료 C를 ‘①→②→③’ 순서대로 해석하는 견해도 일찍부터 제기된 바 있다.<sup>21)</sup> 이에 따르게 되면, 관산성 전투 개전 후 東方領의 주도로 함산성(관산성)을 함락했고, 선발대에 합류한 왕자 여창은 다시 신라정벌을 도모하여 신라 영역에 들어가 구타모라에 요새를 축조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여창이 관산성 함락 이후 추가 진군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관산성 함락 후 백제군이 ‘추가 진군’을 도모했을 가능성은 사료 C-①의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다. 사료 C-①에 따르면, 백제는 12월 9일<sup>22)</sup> 酉時에 함산성 함락 사실을 알리면서 왜에 원병을 요청했고, 지원병이 있으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백제의 추가 원병 요청을 통해, 관산성 함락에 그치지 않고 더 크게 확대되어 갔던 당시의 전쟁 양상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일을 이룰 수 있다’는 표현은 당시 백제의 군사적 목표가 관산성 함락 그 이상이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서기』 내 사료 배치, 함산성 함락 후 원병 요청, 앞서 검토했던 문제 등을 종합해 볼 때, 사료 C의 사건은 ‘①→②→③’ 순서대로 진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정리해보면, 백제 성왕은 먼저 東方領을 보내 함산성을 함락했고, 그 후 선발대

21) 末松保和, 1956, 182쪽 ; 노중국, 2018, 401쪽. 다만 노중국은 같은 책 406쪽에서 여창의 신라 정벌 도모 및 기로의 반대 부분을 개전 이전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서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전덕재 역시 함산성 함락 이후 여창이 구타모라에 요새를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전덕재, 2009, 54쪽), ‘여창의 신라 정벌 도모 및 기로의 반대’의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2) 백제의 사신이 왜에 당도하기까지 1-2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월 9일에 관산성 전투가 개시되었다는 사료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관산성 함락의 시점을 10-11월로 이해하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정재윤, 2023, 59쪽). 이는 『삼국사기』의 7월 전투 개시 기사와 연결하여 이해한 것인데, 당시 사건의 시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주목할만한 지적이다. 다만 여기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면 사료 해석·설명에 있어 복잡하게 되므로, 일단 본고에서는 『일본서기』의 12월 9일 함산성 공격·함락을 기준으로 후반부 전개 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에 합류한 왕자 여창은 그 승세를 몰아 신라정벌을 추가로 도모했으나 기로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결국 기로의 반대를 일축했던 여창이 신라 영역으로 들어가 구타모라에 요새를 쌓고 공격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료 해석에서 주목할 점은 함산성 함락 후 여창의 주도로 ‘추가 진군’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원병을 요청했던 백제의 외교문서(C-①)도 당시 전쟁의 확대를 크게 시사하는데, 왕자 여창은 함산성(관산성) 함락의 기세를 몰아 옥천 너머 다른 방면의 신라 영역을 추가로 공취하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패전책임론의 발단이었던 기로의 신라정벌 반대는 관산성 전투 개전의 상황과는 무관하며, 관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의 ‘추가 진군’에 대한 지적이자 질책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랬기에 기로는 전장에不在했던 성왕 대신 작전결정권을 가진 왕자 여창에게 추가 진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그 반대를 일축하고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다가 성왕의 피살 및 참패를 초래했던 왕자 여창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함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이 추가로 진군하려 했던 목적은 무엇이며, 어느 곳에서 백제와 신라의 전장이 펼쳐졌던 것일까? 왕자 여창이 진출했던 구타모라의 위치와 성왕의 피살 등 관산성 전투 후반부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Ⅲ. 관산성 전투 후반부 전개 과정에 대한 새로운 고찰

본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함산성 함락 후 여창의 추가 진군’이라는 관점에서 관산성 전투 후반부의 전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에 앞서 관산성 전투의 전반부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 문제는 기왕의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

졌고, 또 다양한 관점에서 그 전황이 상세히 논의된 바 있다. 물론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는 작지 않은 편인데, 관산성 전투 전후의 사건들을 어느 시점으로 이해하고 배치하는가에 따라 사건 전개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서기』 흠명기 14년(553) 10월조의 百舍野 전투는 여창의 고구려 공격 및 승리를 전하는 사건이다.<sup>23)</sup> 최근 들어 사료의 시점 그대로 553년 10월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sup>24)</sup> 하지만 기왕의 지적처럼 전체적인 내용상 그 사건은 551년 한성 수복 과정의 일부로 여겨지므로<sup>25)</sup>, 관산성 전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삼국유사』 紀異2 眞興王條의 554년 9월 珍城 전투<sup>26)</sup>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관산성 전투의 개시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관산성 전투의 일환<sup>27)</sup> 혹은 관산성 전투의 보복전<sup>28)</sup>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진성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일대로 비정되고 있는데,<sup>29)</sup> 수도 사비에서 東方城을 거쳐 관산성 방면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지는 않으나,<sup>30)</sup> 최근의 경향처럼 관산성 전투 전반부의 주요 사건 중 하나로

23) 『日本書紀』 卷19, 欽明天皇 14年 10月條.

24) 방용철, 2019 ; 전영우, 2022.

25) 김주성, 2009, 3-7쪽 ; 박성현, 2019, 66쪽 ; 정재운, 2023, 50쪽.

26) “承聖三年九月百濟兵來侵於珍城 掠取人男女三萬九千馬八千匹而去 先是百濟欲與新羅合兵謀伐高麗 眞興曰 國之興亡在天 若天未厭高麗則我何敢望焉 乃以此言通高麗 高麗感其言與羅通好 而百濟怨之故來爾”(『三國遺事』 卷1, 紀異2 眞興王)

27) 장창은, 2014, 190쪽 ; 전영우, 2022, 178-181쪽.

28) 김주성, 2000, 305-306쪽 ; 양기석, 2008, 34-35쪽 ; 김병남, 2010, 20-21쪽.

29) 양기석, 2008, 34쪽 ; 장창은, 2014, 198-199쪽.

30) 이와 관련한 기왕의 지적(김주성, 2009, 7-10쪽)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르면, 백제군이 신라 백성 3만 9천 명을 잡아갔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비하여 진성(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하였는데,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백제가 진성을 공격한 후 돌아갔다(而去)라는 『삼국유사』의 기록도 주목되는데, 성의 함락이 아닐 경우 그 전황을 어떻게 이해할지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성 전투를 관산성 전

서 진성 전투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관산성 전투의 개시 시점에 관한 문제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및 신라본기의 554년 7월로 보는 견해<sup>31)</sup>,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일본서기』를 중심으로 554년 12월로 보는 견해<sup>32)</sup>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최근의 전반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두 사서의 시점을 종합하여 554년 7월에 개시되어 12월에 종료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sup>33)</sup>

이처럼 관산성 전투 전반부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고, 최근에는 위에서 언급한 사건들을 모두 포괄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는 논고들도 여럿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의 사건들을 하나씩 직접 다루지는 않고,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함산성(관산성) 함락 이후의 전개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점은 과연 백제가 ‘관산성 함락’ 그 하나만을 목표로 전쟁을 추진했을까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듯 웅진기·사비기 초 백제의 국가적 목표는 고구려로부터 다시 옛 수도 한성 일대를 수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은 551년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마침내 한강유역 일대를 수복했지만, 지난 70여 년간 염원했던 故土 회복은 고구려와 通好를 맺은 신라에 의해 불과 2년 만에 좌절되고 말았다. 그 후 백제 성왕은 왜에 5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여 원병을 요청하는 등 왜와 가야의 지원병을 규합하면서 신라정벌을 계획·준비하였다. ‘한강유역 재상실에 대한 복수전’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과연 백제는 관산성 즉

---

투 중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으로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진산 방면 진출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문헌·고고학적 증거도 필요하다.

31) 양기석, 2008, 35쪽.

32) 전덕재, 2009, 52쪽.

33) 김영심, 2007, 257~264쪽 ; 김병남, 2010, 16쪽 ; 장창은, 2014, 189~195쪽 ; 서영교, 2016, 61~62쪽 ; 전영우, 2022, 157~158쪽 ; 정계운, 2023, 61쪽.

옥천 일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었을까? 백제 성왕은 적어도 한성 수복에 상응하는 군사적 성과를 목표로 신라정벌을 계획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옥천 일대는 6세기 중엽 백제·신라 간 대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요충지다.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지적되었듯이, 백제가 관산성을 노린 이유는 신라 王京과 한강 유역을 연결하는 교통로 차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라 영역의 허리를 자르는 공격을 시도함으로써 한강유역으로 향하는 주요 교통로 중 하나인 추풍령로를 차단·장악하려 한 것이다.<sup>34)</sup> 또한 백제가 옥천 일대를 확보하면, 추풍령로뿐 아니라 沙伐州(경북 상주)에서 三年山郡(충북 보은)으로 연결되는 동북 방향의 화령로에 대해서도 압박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상황을 감안할 때, 백제의 관산성 공격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 공략을 위한 첫 번째 포석이라 이해된다.

다만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옥천 일대의 장악이 곧 신라의 추풍령로·화령로에 대한 확실한 차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옥천 以東의 영동·황간, 그리고 옥천 동북 방향의 청산·화령까지 확보해야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sup>35)</sup>를 완전하게 틀어막을 수 있다. 따라서 554년 전역에서 그 군사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산성 함락에 그치지 않고, 그 以東에 위치한 吉同郡(영동)·召羅縣(황간)에 대한 공략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물론 백제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 차단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신라를 압박하려 했는지 아니면 승세를 잡았을 때 단기간에 몰아쳐서 一擧에 공취하려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551년 고구려 침공 당시 6郡의 범위에

34) 김병남, 2010, 12~13쪽 ; 정재윤, 2023, 62쪽.

35) 정확히 말하자면, 竹嶺 以西의 추풍령로·화령로의 차단을 말한다. 그 두 곳이 막히더라도 신라는 죽령을 통해 영주에서 단양을 거쳐 충주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추풍령로와 화령로는 신라가 5세기 중엽부터 소백산맥 以西 지역으로 진출해왔던 주 교통로로, 이곳을 차단당하면 한강유역 진출 및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달하는 한강유역을 一擧에 공취했던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로부터 3년 만에 시도된 신라정벌 역시 一擧에 여러 지역을 공략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다.

게다가 실제 군사적 지원의 수준과는 별개로,<sup>36)</sup> 백제 성왕이 552년 5월부터 왜에 꾸준히 원병을 요청하고, 결국 가야 세력의 군사적 지원까지 받았던 상황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그만큼 554년 신라정벌을 오랜 기간 계획·준비하고 결국 관산성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그러한 준비 기간 및 타국의 군사적 지원을 감안하면, 554년의 전역은 관산성 함락뿐 아니라 더 큰 성과를 목표로 추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554년 백제의 전역이 한성 수복에 상응하는 큰 목표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산성 전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자.

C. (554년) ① 겨울 12월에 백제가 下部 杆率 汶斯干奴를 파견하여 表를 올려 말하기를, “百濟王 臣 明과 安羅에 있는 여러 倭臣들, 任那 諸國의 旱岐들이 아뢰입니다. (…중략…) 12월 9일에 斯羅를 공격하러 보내면서 신이 먼저 東方領 物部連莫奇武을 파견하여 그 方의 군사를 거느리고 函山城을 공격하게 하였습니다. (…중략…) 천황의 威靈을 입어서 이달 9일 酉時에 성을 불태우고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1인의 사자를 파견하여 배를 빠르게 몰아서 아뢰입니다.” 라고 하였다. (…중략…)

② 여창이 신라 공격을 도모하니, 耆老가 간언하기를, “하늘이 함께 하지 않는데,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창이 말하기를, “늙었구나! 무엇이 겁나는가? 우리는 대국을 섬기는데 어찌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라고 하고는 마침내 신라국에 들어

36) 당시 백제의 지속적인 원병 요청에 불구하고 왜의 실제 군사적 지원은 병력 1천 명, 말 1백 필, 배 40척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4~5세기 백제로 파병된 왜 병력 규모에 비해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양기석, 2008, 28쪽).

가 久陀牟羅에 요새를 축조하였다.

③ 그 아버지 明王은 여왕이 오랫동안 힘들게 진군하여 진을 치면서 잠자고 먹는 것을 오래도록 못하였고,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크게 걱정하였다. 이에 몸소 가서 그 노고를 위로하고자 했다. 신라는 명왕이 직접 온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병사를 모두 징발하여 길을 끊고 격파하였다.<sup>37)</sup>

D. (554년) 백제왕 明禮이 加良과 함께 와서 管山城을 공격하였다. 軍主 角干 于德, 伊滄 耽知 등이 맞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新州軍主 金武力이 州兵을 이끌고 왔다. 교전하게 되자, 裨將 三年山郡 高干 都刀가 재빨리 공격하여 백제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대가 승세를 타서 크게 이겼다. 佐平 4인과 사졸 29,600인을 참수하였고, (백제군은) 한 필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sup>38)</sup>

E. (554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亂兵에게 살해되었다. 시호를 聖이라 하였다.<sup>39)</sup>

37)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諸倭臣等任那諸國旱岐等奏(…중략…)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臣先遣東方領物部莫奇武連 領其方軍士 攻函山城(…중략…)蒙天皇威靈 以月九日酉時 焚城拔之 故遣單使馳船奏聞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伯與斯羅 同心戮力 難可成功 伏願 速遣竹斯嶋上諸軍士 來助臣國 又助任那 則事可成(…중략…)餘昌謀伐新羅 耆老諫曰 天未與 懼禍及 餘昌曰 老矣 何怯也 我事大國 有何懼也 遂入新羅國 築久陀牟羅塞 其父明王憂慮 餘昌長苦行陣 久廢眠食 父玆多闕 子孝希成 乃自往迎慰勞 新羅聞明王親來 悉發國中兵 斷道擊破”(『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5年)

38) “百濟王明禮與加良 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伊滄耽知等 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干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 大克之 斬佐平四人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年)

F. 할아버지 武力은 新州道行軍總管이 되어 일찍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백제 왕과 그 장수 4명을 사로잡고 1만여 명을 斬首하였다.<sup>40)</sup>

G. 文武大王은 이미 英公과 함께 평양을 격파하고 돌아오며 南漢州에 이르러 여러 신하에게 말하기를 “옛날 백제의 明禮王이 古利山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꾀하였는데 유신의 할아버지인 武力 角干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맞받아 공격하여 승기를 타고 그 왕 및 재상 4명과 군사들을 사로잡아 그 침입을 꺾었다.” 라고 하였다.<sup>41)</sup>

관산성 전투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여러 사료가 남아있으나, 대부분 단편적인 내용만을 전하고 있다. 사료 C~G를 살펴보면 내용의 결이 모두 다른데, 각각 다른 맥락과 관점에서 관산성 전투 중 특정한 시점의 사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서기』 흙명기 15년 12월조 기사(사료 C)를 중심으로 전투의 개시부터 살펴보면, 백제 성왕은 먼저 東方의 군사를 보내 554년 12월 9일 오후 5시~7시에 函山城을 함락시켰다고 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사료 D)에는 그 전장을 笱山城이라 했는데, 음운의 유사성 및 같은 시점의 사건임을 고려하면 함산성과 관산성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산성(함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옥천의 환산으로 보거나 삼성산성을 지목하는 견해가 있었고,<sup>42)</sup> 또한 이들

39) “秋七月 王欲襲新羅 親帥步騎五十 夜至狗川 新羅伏兵發與戰 爲亂兵所害 薨諡曰聖”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32年)

40) “祖武力爲新州道行軍總管 普領兵獲百濟王及其將四人 斬首一萬餘級” (『三國史記』 卷41, 列傳1 金庾信 上).

41) “文武大王既與英公破平壤 還到南漢州 謂羣臣曰 昔者 百濟明禮王在古利山 謀侵我國 庾信之祖武力角干 爲將逆擊之 乘勝俘其王及宰相四人與士卒 以折其衝” (『三國史記』 卷43, 列傳3 金庾信 下).

을 아울러 환산 보루와 삼성산성을 아우르는 보루의 총칭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43)</sup> 다만 옥천 분지의 중심지를 현재의 옥천 읍내 일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 삼양리토성을 중심으로 삼성산성과 서산성 일대까지 아울러서 폭넓게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sup>44)</sup>

한편으로는 사료상의 관산성(함산성)을 구체적인 개별성곽이 아니라 옥천 일대를 가리키는 지역명으로서의 ‘관산성’으로 보는 견해도 주목되는데<sup>45)</sup>, 이것이 사료의 맥락에는 더 잘 어울린다고 판단된다. 함산성 함락 후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문서를 통해 그 승리를 알리기까지 한 점(사료 C)을 고려한다면, 성곽 하나가 아니라 옥천의 중심 지역을 장악하는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554년 12월 9일 백제 東方軍의 선공으로 관산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으며, 백제는 첫 전투에서 승리하여 적어도 옥천 분지 서편을 장악하는 전과를 올렸던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신라의 군사적 대응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사료 D)에서 확인된다. 앞선 연구에서 잘 지적되었듯이, 관산성 함락 후 上州의 軍主 于德과 중앙에서 파견된 耽知의 존재로 볼 때 신라에서 동원된 군사는 沙伐停 및 大幢의 병력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병력 집결 및 이동·반격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먼저 백제의 선공으로 관산성이 함락된 후, 상주의 군사와 중앙군단이 반격에 나섰다가 패배했던 것으로 이해된다.<sup>46)</sup> 이렇듯 관산성 전투 초기 전황에서는 백제가 1차로 관산성 함락, 2차로 신라 상주정 및 중앙군단의 반격을 격퇴하면서 승세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신라 상주정 및 중앙군단의 반격 당시, 왕자 여창은 전장의 어느

42) 문안식, 2006, 358쪽.

43) 김병남, 2010, 12쪽.

44) 정재윤, 2023, 61~62쪽.

45) 양기석, 2008, 36쪽.

46) 전덕재, 2009, 60~62쪽.

곳에 있었을까? 앞서 II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사료 C-①과 C-②를 순서대로 해석하면, 관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은 후방 병력을 이끌고 옥천 일대에서 동방령의 병력과 합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47)</sup> 물론 백제 東方의 군사가 단독으로 신라의 상주정 및 중앙군단의 반격을 물리친 것인지, 아니면 여창의 병력과 東方의 군사가 함께 신라의 반격을 저지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병력의 이동시간 등을 고려할 때, 관산성 함락 직후 왕자 여창이 후방 병력을 이끌고 빠르게 합류한 후 백제군의 총지휘관으로서 신라 상주정과 중앙군단의 반격을 막아냈다고 생각된다.

그다음 백제군의 움직임은 앞서 검토했던 사료 C-②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신라군의 반격을 막아낸 후 왕자 여창은 신라정벌을 도모하였는데, 이는 관산성 함락 후 ‘추가 진군’을 통해 신라의 다른 지역을 더 공취하려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자 기로는 하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추가진군을 반대했으나, 여창은 ‘늪었다’고 하면서 기로의 반대를 일축하고 마침내 신라의 영역으로 들어가 구타모라에 요새를 쌓고 신라 공격을 준비하였다.

당시 기로가 여창의 추가 진군을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후일 위덕왕 패전책임론의 발단이 되는 것인데, 단순히 기로의 말을 무시했다고 패전책임론까지 거론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인 사안 즉 왕자 여창의 ‘군사적 선택과 판단’이 결과적으로 관산성 전투 참패와 성왕의 죽음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후일 諸臣이 위덕왕을 강하게 질책하고 비판했다고(사료 A)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여창의 군사적 행위는 사료상 ‘신라국에 들어가 구타모라에 요새를 축조한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결국 구타모라 진출이 당시 전술적인 패착이었다는 지적으로 볼 수 있다.

구타모라 진출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군사적 선택이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일단 다른 지역으로 군사적 진출 시 백제군의

---

47) 전덕재, 2009, 60쪽.

병력과 전선이 여러 곳으로 확장·분산된다는 점을 지적해볼 수 있다. 특히 관산성 전투 당시에는 상주정은 물론이고 중앙군과 新州停까지 동원되는 등 신라의 대규모 병력이 옥천 방면으로 집결되고 있었다. 이렇게 전쟁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백제군의 병력과 전선이 분산되면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기로는 왜의 추가 지원병력이나 국왕 성왕의 추가 병력을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에서 여창의 성급했던 추가 진군을 우려·반대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왕자 여창은 승세를 잡은 상황을 이용하여 一擧에 더 많은 지역을 공취하고자 진출을 도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작전권을 가진 지휘관으로서 여창은 기로의 우려와 반대를 일축하고,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 신라국으로 들어가 구타모라에 요새를 축조하였다.

당시 진출했던 구타모라라는 지역은 어느 곳일까? 사료 C-②를 전치문으로 본 기존 연구에서는 구타모라 요새 축조를 관산성 전투 직전의 사건으로 보고, 그 위치를 옥천에 도달하기 전의 지역 즉 옥천의 서쪽 방면에서 구하고 있다.<sup>48)</sup> 반면 함산성을 함락시킨 후 구타모라 요새를 쌓았다고 보기도 하는데<sup>49)</sup>, 이는 옥천 분지 내 관산성 근처에 요새를 축조하고 신라군의 공격에 대비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일단 전자의 경우, 앞서 II장에서 사료 C-②를 전치문으로 볼 수 없다고 검토했기 때문에, 구타모라 요새의 위치를 옥천의 서쪽 방면에서 찾을 수는 없다. 후자의 경우 가능성은 있지만, 『일본서기』의 내용과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사료 C-②의 문맥에 따르면, 분명히 신라 정벌을 위해 신라의 영역에 침투하여 요새를 구축했다고 했으므로, 옥천 분지의 방어를 위해 구타모라 요새를 쌓았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왕에 확보한 옥천 분지 내에서 신라군의 반

48) 구체적으로는 옥천군 군북면의 환산으로 보기도 하고(정영호, 1975, 222쪽), 군서면의 성치산성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전영우, 2022, 161-162쪽). 또한 구체적인 비정은 하지 않았지만, 백제가 먼저 구타모라에 진출하고 함산성을 공격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정재운, 2023, 63쪽).

49) 전덕재, 2009, 54쪽 ; 장창은, 2014, 203-204쪽.

격을 방어하려 했다면, 앞서 함락시킨 관산성을 거점으로 삼고 옥천 분지 내 서편 일대에 주둔하면서 방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중앙군단과 상주정을 동원한 반격에서 패배한 신라의 잔여 병력은 옥천 분지 내에 계속 남아있기 어려우므로, 안전한 후방 거점으로 퇴각하여 전열을 정비했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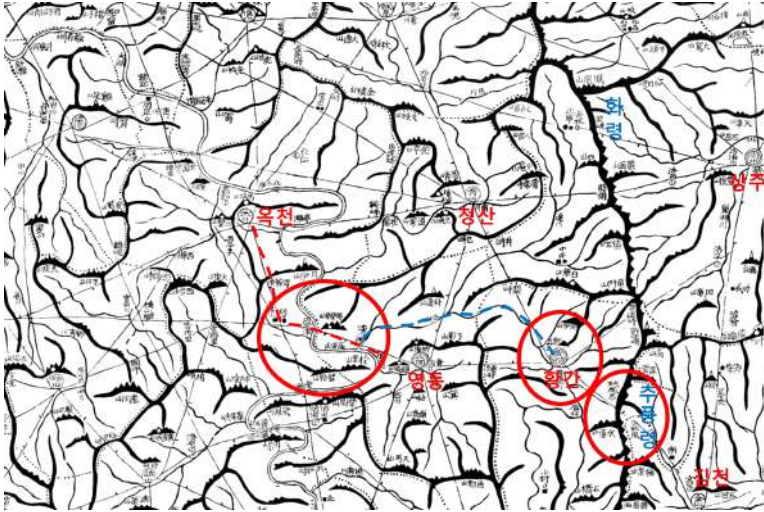
결국 구타모라의 위치 비정과 관련해서는 사료 C의 해석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일본서기』의 기사 순서대로(C-①→C-②)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東方領의 주도로 東方의 군대는 먼저 관산성을 함락하여 중요 거점을 확보했고, 여창의 본대까지 합류한 백제군은 중앙군단과 상주정을 동원했던 신라군의 반격을 물리치고 옥천 분지 일대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 패배한 신라의 잔여 병력이 안전한 후방 거점으로 퇴각하여 전열을 재정비하는 동안, 왕자 여창은 다시 그 승세를 몰아 신라의 영역으로 침투하여 구타모라에 요새를 쌓고 추가로 신라정벌을 도모했던 것이다.

따라서 여창의 추가 진군을 고려할 때, 지역적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구타모라의 위치를 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함산성 함락 후 백제군이 소백산맥 너머 낙동강 상류 지역까지 진출하여 구타모라 요새를 축조했다고 본 견해가 일찍이 제출된 바 있다.<sup>50)</sup>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백제군의 진출 범위를 과도하게 설정하여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아무리 2차 전투에서 패배했다고는 하나, 중앙군단과 상주정이 합세하는 등 신라군의 규모는 작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관산성 함락으로 옥천 일대를 백제에 내주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영동·황간 등 교통로 상의 후방 거점은 건재한 상황이었으므로, 백제가 소백산맥 너머 낙동강 상류까지 진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여창이 이끌었던 백제군은 기왕에 확보한 옥천 분지를 후방 거점으로 두고 그곳에서 멀지 않은 신라의 영역으로 침투

---

50) 末松保和, 1956, 182쪽.



[그림 1] 옥천-영동-추풍령 일대(대동여지도)

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 당시 전쟁의 공략 목표라 볼 수 있는 추풍령로와 화령로를 감안할 때, 관산성 함락 후 추가 진군 지역으로 주목해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충북 영동군 심천면 일대이다.

이곳은 옥천과 영동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옥천에서 그 以東 지역으로의 진출 구간 중 첫 번째로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이다. 심천면 일대에서는 크게 세 방면으로의 진출이 가능한데, 남쪽으로는 助川城 전투로 유명한 영동 양산면 일대로 갈 수 있고, 동남쪽으로는 영동천을 따라 영동읍으로 이어지며 그곳에서 다시 황간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초강천을 따라 곧바로 황간면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 도중에는 북동쪽으로 용산면을 거쳐 화령 방면으로도 갈 수 있다.

특히 심천면 일대에서는 황간 방면에 대한 공격을 두 경로로 전개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동읍을 거친 후 황간으로 가는 경로이며 나머지 하나는 초강천을 따라 곧바로 황간으로 가는 경로다. 주지하듯이 황간 일대는 추풍령로를 관장하는 요지로서, 신라의 소백산맥 以

西 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 지역 중 하나다.

이러한 옥천 주변의 지리적 환경과 교통로를 감안할 때, 관산성 함락 후 여창의 백제군은 ‘추가 진군’을 통해 추풍령로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황간 직공 혹은 영동·황간 공격을 도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사벌주와 삼년산군 사이의 화령로를 차단하기 위한 공격도 또 하나의 선택지로 두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듯 추풍령로·화령로 방향을 공략하기 위해 우선 백제군이 주둔하면서 일시적인 주둔지로 삼을만한 곳은 충북 영동군 심천면 일대이다. 영동군 영동읍은 관산성 함락 후 후방 거점으로서 신라의 중앙군단과 상주정이 주둔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동읍에 바로 앞선 지역인 심천면 일대가 백제군의 추가 진군 지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앞서 검토했듯 이곳은 영동을 우회하여 황간 일대를 직공할 수도 있는 위치에 해당되며, 추풍령로와 화령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펼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점은 영동군 심천면 및 양강면 등 금강 본류를 끼고 있는 이 지역에 羅濟 간 전투와 관련한 지명과 口傳이 다수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심천면 각계의 稷洞 마을에는 관산성 전투 당시 백제 성왕과 좌평 4명을 비롯하여 3만에 달하는 병사가 이곳에서 전사하면서 ‘피로 물들여졌다’라고 하여 핏골 혹은 血谷으로 불렸다는 전승이 남아있기도 하다.<sup>51)</sup> 물론 지역 전승에 큰 무게를 둘 수는 없겠으나, 羅濟 간 격전의 무대로서 이 일대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한편 신라의 중앙군단과 상주정이 영동 방향으로 퇴각하여 전열을 재정비하고 추가 진군했던 백제군과 대치를 벌이는 가운데, 新州 軍主 金武力이 신주의 군사를 이끌고 옥천 방면으로 이동해왔다. 이는 『삼국사기』 신라본기(사료 D)와 김유신 열전(사료 F·G)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신주정은 한강 유역을 출발하여 보은 일대에서 高干 都

51) 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553-554쪽.

刀의 삼년산군 부대와 합세한 뒤 옥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옥천의 동북쪽 방면에 주둔하면서 일단 백제군의 삼년산군 방면 진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백제군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전투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백제와 신라 양국의 군사가 옥천의 동쪽과 북쪽 방면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백제의 국왕 성왕까지 참전함에 따라 전황은 다시 크게 요동치게 되었다. 당시 성왕의 이동 및 피살을 보여주는 사료는 제각각 다른 내용을 전하지만(사료 C-G), 지금까지 살펴본 ‘추가 진군’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비교적 일관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사료 G는 후일 신라 文武王이 관산성 전투를 회고한 것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明禮王(성왕)이 古利山에 있으면서 신라를 침략하려고 도모했다(明禮王在古利山 謀侵我國)’는 점이다. 기존에는 이 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관산성 전투의 대강을 설명하는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왔던 것 같다. 하지만 ‘在古利山’의 문구를 좀 더 분명하게 새겨보면, 사료 G에서 백제가 이미 관산성 일대를 함락한 후 다시 신라를 공격하려 했던 군사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다. 즉 백제 성왕이 관산성 함락 후 고리산(옥천 일대)에 당도했고, 그곳에서 다시 신라를 공격하려다가 좌평 4명과 함께 전사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료 G 역시 백제군의 ‘추가 진군’의 가능성을 크게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사료 E)도 ‘신라 습격’을 위해 이동했다는 맥락에 방점을 두고 해석해볼 수 있다. 물론 보병과 기병 50명만을 대동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긴 하겠으나, 기왕의 지적처럼 이는 보기병 5천의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sup>52)</sup> 따라서 사료에 명백

52) 이에 대해 일본 宮内省本 『삼국사기』에는 五十이 아니라 五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전쟁의 규모로 볼 때 5천의 병력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도학, 1997, 197쪽). 아울러 『삼국사절요』에도 당시 성왕이 이끌었던 보기병의 숫자는 5천으로 나타난다. 특히 보병과 기병이라 특기된 점을 보

하게 ‘신라를 습격하려 했다’는 목적이 기술된 만큼, 이 역시 관산성 함락 후 ‘추가 진군’을 목적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사료 E는 앞선 전투의 대부분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추가 진군 과정에서 성왕의 이동 및 피살과 관련된 내용만 특기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일본서기』(사료 C)에도 성왕의 이동 및 피살 사건을 전하는데, 여기에는 당시 성왕의 이동 목적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父王 성왕이 아들 여창의 장기간 행군과 피로를 걱정하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 직접 여창의 주둔지였던 구타모라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만약 관산성 함락에서 당시 전쟁을 끝내려 했다면, 과연 성왕이 직접 이동했을까? 그렇다면 관산성 함락 후 다시 여창을 불러들이면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행군의 피로를 운운하면서 국왕이 직접 전장으로 향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격려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국왕의 親征을 통해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성왕은 앞선 551년 한성 수복 과정에서도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을 주도한 바 있다.<sup>53)</sup> 한성 수복 작전으로 이해되는 百舍野 전투에서도 왕자 여창이 선봉에서 크게 활약한 바 있는데, 관산성 전투 역시 같은 양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왕자 여창이 주력군을 이끌면서 선봉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국왕 성왕은 전황에 따라 후방에서 합류하면서 군대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제군은 1, 2차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어 옥천 일대를 장악하고, 왕자 여창의 주도로 구타모라까지 진출하여 추가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듯 관산성 전투의 초기 전황에서 유리한 승기를 잡게 되자, 성왕이 직접 추가 병력을 이끌

---

면, 당시 병력은 50명이 아니라 5천 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53) “是歲 百濟聖明王 親率衆及二國兵[二國謂新羅任那也] 往伐高麗 獲漢城之地 又進軍討平壤 凡六郡之地 遂復故地”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2年).

고 관산성 및 구타모라 방면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추가 진군을 위해 여창의 주력부대가 구타모라 방면으로 진출하면서, 백제군의 병력과 전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주력군이 빠져나간 관산성 일대는 신라군의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성왕이 본진에 합류하기 위해 이동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시 옥천 북쪽 방면에서 주둔하던 신라 신주정이 성왕의 이동 정보를 파악한 후 백제 주력군의 후방 교통로를 끊어내고 성왕을 생포·살해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후일 諸臣이 질책했던 위덕왕의 ‘지난 잘못(前過)’이란 전선의 확대 및 성왕의 피살을 초래한 ‘기로의 발언 무시-구타모라 진출 강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왕의 피살 및 관산성 전투의 종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성왕의 생포 장소는 『삼국사기』 백제본기(사료 E)의 狗川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천의 위치를 정확하게 짚어내긴 어렵지만, 대체로 관련 口傳이 전해지는 옥천군 군서면의 구진배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54)</sup> 그렇다면 보은에서 남하하여 옥천 북쪽 방면에 주둔했던 신라 신주정이 백제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옥천 분지의 서쪽까지 과감하게 진출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을 언급해보자면, 옥천 분지와 영동 심천면 사이의 금강 일대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금강 본류는 각 지점에 따라 熊川·泗泚河 등의 이름으로 불렸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구천 역시 옥천과 영동 사이를 흐르는 금강 본류의 또 다른 명칭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도 옥천과 영동 사이를 관통하는 금강 본류를 ‘九江’이라고 부르고 있으며<sup>55)</sup>, 심천면 九灘里에는 금강 본류가 九字처럼 굽이쳐 흐른다고 하여 그 일대를 구

54) 정영호, 1976, 42쪽.

55) 충북 영동군 양강면 일대를 흐르는 금강 본류를 九江이라 부르는데, 그 중에서도 虎灘부터 赤登津 사이에 있는 양강면 구강리 일대의 금강 본류를 지칭하는 하천 지명이다(국토지리정보원, 2010, 253쪽).

미여울·구탄이라 불렀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sup>56)</sup> 그런 측면에서 공주 방면의 금강 본류를 熊川이라 했듯이<sup>57)</sup>,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구천 역시 옥천과 영동 사이의 금강 본류를 지칭했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sup>58)</sup>

만약 성왕의 생포 및 피살 장소를 옥천과 영동 심천면 사이의 금강 본류로 볼 경우, 앞서 검토했던 사료 G의 해석도 좀 더 용이해진다. 즉 사료에는 백제 성왕이 고리산(옥천 일대)에 있으면서 신라를 치려고 도모했다고 했는데, ‘구천’을 옥천 동남쪽 방면의 금강 본류로 보게 되면 그 이동 경로 및 피살 장소가 사료의 맥락에 좀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구천이 어느 곳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옥천군 군서면의 구진베루와 함께 ‘옥천과 영동 심천면 사이의 금강 본류’도 그 추정지로 검토해볼 가치는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백제 성왕이 신라 신주정의 군사들에게 생포되어 살해된 후, 전쟁은 백제의 대패로 종결되었다. 앞서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여창의 백제군은 앞뒤로 포위당했는데, 전방에서는 영동 방면의 신라 중앙군단과 상주정이, 후방에서는 성왕의 본진 합류를 저지한 신주정에 의해 가로막혔던 것이다. 당시 백제군이 포위되었다는 정황은 『일본서기』에도 전해지는데, 왕자 여창은 사잇길로 빠져나와 귀환했으나, 결국 백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참패하고 말았다.<sup>59)</sup>

56) 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1297쪽.

57) “十三年 夏六月 熊川水漲 漂沒王都二百餘家”(『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東城王 13年).

58) 앞서 언급했듯이 이 구강 일대에는 삼국시대 관련 전승 중 백제와 신라의 격전에 관한 내용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영동읍 서쪽 산 너머 끝자기에는 전쟁 중 신라의 입금이 와서 장수들을 격려하고 갔다는 어서실이라는 지명이 남아있다(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509쪽). 또한 삼국시대에 백제와 신라가 격전을 벌인 곳으로 소코실이라는 지명도 전해지고 있다(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536쪽). 심지어 성왕의 피살 장소로 핏골 혹은 血谷이라 불렀던 심천면 각계의 직동마을을 지목한 전승도 남아 있다(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553-555쪽).

59) 『日本書紀』卷19, 欽明天皇 15年.

당시 백제군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사료마다 조금 다르게 전해진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사료 D)에는 좌평 4명과 군사 29,600명이 참수되었다고 하였으나,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사료 F)에는 재상 4명과 군사 1만 명을 참수했다고 기록하였다. 이에 대해 김유신 열전의 1만이라는 숫자는 신라군 전체의 전과라기보다는 김무력이 지휘했던 신주정의 전과만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sup>60)</sup>, 그만큼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약 3만에 달하는 군사와 함께 좌평 4명과 국왕을 잃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의 ‘추가 진군’이라는 관점에서 구타모라 진출 및 요새 축조 사건을 살펴봄으로써 관산성 전투 후반부의 전개 과정을 새롭게 재구성해보았다. 대개 관산성 전투의 지역적 범위를 옥천 분지 및 그 서쪽 방면에 한정하여 검토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었다. 하지만 옥천 분지 및 그 以東의 영동·황간 방면까지 시야에 넣고 당시 전황을 추적한다면, 관산성 전투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여창의 ‘추가 진군’이라는 관점에서 관산성 전투 후반부 전개 과정을 이해해보면, 『삼국사기』 백제본기 및 김유신 열전 등 나머지 사료의 맥락도 좀 더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일본서기』 흠명기 15년 기사의 해석을 바탕으로 ‘관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의 추가 진군 가능성’을 검토한 뒤 당시 진출했던 구타모라의 위치 및 진군 목적 등 관산성 전투 후반부의 전개 과정을 새롭게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대체로 옥천 분지 및 그 서편을 관산성 전투의 무대로 파악한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당시

60) 전덕재, 2009, 66쪽.

전쟁의 지역적 범위를 넓혀 관산성 함락 후 여창이 영동군 심천면 일대에 진출하여 구타모라 요새를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관산성 전투의 후반부 전개과정을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검토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관산성 전투 패전 후 諸臣들은 위덕왕에게 패전의 책임을 지적·질책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그 책임소재를 왕자 여창이 기로의 반대를 무시하고 관산성 전투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파악해왔다. 하지만 당시 전쟁을 계획·준비했던 실질적인 주체는 성왕이었고, 신라정벌의 명분 역시 대내외적으로 분명했으며, 약 2년에 걸쳐서 신라 공격을 준비해왔던 상황을 고려할 때 기로가 반대했던 시점은 개전 이전의 상황이 아니라 전투 과정 중이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일본서기』 흠명기 15년 기사 역시 사료 배치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관산성 함락 후 왕자 여창이 추가 진군을 도모하여 결국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여창의 책임소재는 관산성 함락 후 기로의 반대를 무시하고 구타모라까지 진출한 군사적 행위였으며, 諸臣들은 그 군사적 행위로 인해 성왕의 피살 및 참패를 초래했던 위덕왕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554년 백제가 추진했던 신라 공격은 ‘한강유역 재상설에 대한 복수전’으로 시작된 만큼 한성 수복에 상응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백제 東方의 군사로 관산성을 함락한 후 왕자 여창은 후방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여 신라의 상주정 및 중앙군단의 반격을 물리쳤고, 추가로 신라정벌을 도모하여 기로의 반대를 일축하고 구타모라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창이 추가 진군했던 구타모라는 추풍령로와 화령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노릴 수 있는 영동군 심천면 일대로 추정되는데, 그곳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군의 피로 물들여졌다는 핏골 관련 전승 등 그 지역에 많이 남아있는 口傳이 참고된다. 그러나 기로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구타모라 진출로 인해 백제군의 병력과 전선이 분산

되었고, 그 결과 옥천 방면으로 이동하던 성왕이 피살된 후 백제군은 참패하고 말았는데, 후일 위덕왕에게 제기된 패전 책임소재는 기로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추가 진군을 결정했던 군사적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투고일: 2023.11.14, 심사개시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참고문헌】**

- 국토지리정보원, 2010, 『한국지명유래집』 충청편
- 김갑동, 1999, 「新羅와 百濟의 管山城戰鬪」, 『白山學報』 52, 백산학회
- 김병남, 2010, 「백제 성왕대 관산성 전투의 의미」, 『전북사학』 36, 전북사학회
- 김영심, 2007, 「관산성 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김주성, 2000,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 김주성, 2009, 「管山城戰鬪의 背景」, 『中原文化論叢』 12
-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 문안식, 2006, 『백제의 흥망과 전쟁』, 해안
- 박성현, 2019, 「신라의 입장에서 본 551~554년 삼국 사이의 전쟁」, 『새로운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시작 한강유역과 관산성』,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방용철, 2019, 「553년 백제·고구려의 百舍野 전투 검토」, 『민족문화논총』 7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서영교, 2016, 「餘昌의 백제연합군과 신라의 전쟁」, 『百濟文化』 55
- 양기석, 2008, 「管山城戰鬪의 樣相과 影響」, 『中原文化論叢』 12
- 양기석, 2013, 『백제 정치사의 전개과정』, 서경문화사
- 연민수 외, 2013, 『역주 일본서기』 2, 동북아역사재단
- 영동군지편찬위원회, 2004, 『永同郡誌』 下
- 이도학, 1997,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 이근우, 1994,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장창은, 2011, 「6세기 중반 한강 유역 쟁탈전과 管山城戰鬪」, 『震檀學報』 111, 진단학회

- 장창은, 2014,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 전덕재, 2009, 「관산성 전투에 대한 새로운 고찰」, 『新羅文化』 3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 전영우, 2022, 「554년 管山城 전투의 배경과 전개」, 『한국고대사연구』 107, 한국고대사학회
- 정영호, 1975, 「百濟 古利山城考」, 『百濟文化』 7·8
- 정영호, 1976, 「金庾信의 百濟攻擊路 研究」, 『史學志』 6, 단국대학교 사학회
- 정운용, 2007, 「한강 유역 회복과 관산성 전투」, 『사비도읍기의 백제』,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
- 정재윤, 2023, 「관산성 전투와 그 의의」, 『百濟研究』 7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주보돈, 2012, 「백제 聖王의 죽음과 신라의 ‘國法」」, 『百濟文化』 47,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田弘文館

**【Abstract】**

**The discussions that King Wideok was responsible for losing the war and The Process of the Battle of Gwansan Fortress**

Park, Jonguk  
(Korea University)

This paper newly interpreted the article of Nihonshoki(日本書紀) to reveal the reality of the discussions that King Wideok(威德王) was responsible for losing the war, and also estimated that Prince Yeochang(餘昌) built a fortress of Gutamura(久陀牟羅) in the area of Simcheon-myeon, Yeongdong-gun, Chungbuk during the Battle of Gwansan Fortress. Prince Yeochang(King Wideok), who ascended the throne after the defeat in the Battle of Gwansan Fortress, was held accountable for the defeat by many of his ministers. Therefore, previous studies have generally understood that Prince Yeochang attempted to fight Gwansan Fortress Battle in defiance of the opposition of the senior minister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actual subject of the war was Prince Yeochang's father, King Seong(聖王), and that he had been preparing for the war with Silla for about two year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opposition point of the senior minister was not before the war with Silla, but during the war with Silla. In addition, if the article on the 15th year of Kinmei-Record

on Nihonshoki is interpreted in order, it can be seen that after the fall of Gwansan Fortress, Prince Yeochang attempted additional attacks and eventually moved the military to Gutamura. Therefore, Yeochang's responsibility can be attributed to the military action that went all the way to Gutamura, ignoring the opposition of the senior ministers after the capture of Gwansan Fortress. It is interpreted that many ministers held King Wideok responsible for the war's defeat, as such military actions killed King Seong and ultimately defeated the Battle of Gwansan Fortress.

On the other hand, Baekje's attack on Gwansan Fortress in 554 began as a "revenge against the re-emphasis on the Han River basin", so it can be said that it was carried out with a goal as important as the restoration of Hanseong(漢城). In this regard, after the successful attack on Gwansan Fortress, Prince Yeochang joined the rear troops, beat the counterattack of Silla's Sangjujeong(新州停) and the central army, and further advanced to Gutamura despite opposition from senior ministers to conquer Silla. It is estimated that Gutamura, which was additionally marched at that time, is the area of Simcheon-myeon, Yeongdong-gun, Chungbuk, where military pressure was possible on Chupungryeong Road(秋風嶺路) and Hwaryeong Road(化嶺路). One of the reasons for this estimation is that the story of the blood-stained valley of Baekje-army and the death of King Seong is told in this area. However, Baekje's troops were dispersed due to the advance to Gutamura, which was carried out despite the opposition of

the senior minister, and as a result, King Seong, who was moving from Okcheon, was killed and Baekje's troops were defeated. Therefore, it is understood that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feat of Gwansan Fortress, which was later raised against King Wideok, was a military act that hastily decided to advance additional troops in defiance of the opposition of the senior minister.

Keywords : the Battle of Gwansan Fortress(管山城 戰鬥),  
King Wideok(威德王), Prince Yeochang(王子  
餘昌), King Seong(聖王), Gutamora(久陀牟羅),  
Gucheon(狗川), Simcheon-myeon  
Yeongdong-gun